

# 국 어

## 해설위원: 정채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평]

2017 국가직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중'으로 볼 수 있다. 문법 7문제, 어휘 4문제, 비문학 독해 2문제, 문학 독해 7문제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독해의 비중이 비문학 중심에서 문학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를 10문제 정도의 비중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전 시험에서는 비문학 독해의 문제가 7문제였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문학 지문의 독해 문제가 7문제였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영역별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문법 영역>

현대 국어 문법에서 음운론 1문제, 형태론 2문제, 의미론 1문제가 출제되었고, 중세 국어 문법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음운의 이해와 접두사의 쓰임, 용언의 활용, 문맥적 의미,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들로, 문제 자체는 평이하였다. 어문 규정에서는 한글 맞춤법 1문제가 띄어쓰기 규정 1문제가 출제되었고,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는 '하'이다.

#### <어휘 영역>

순우리말 1문제, 한자어의 표기와 독음이 각각 1문제, 한자성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어휘 영역의 문제는 예년의 비율과 수준을 유지하였다.

#### <비문학 독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와 글의 논리적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가 각각 1문제 출제되었고, 예년에 비해 비문학 독해 문항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독해의 유형으로 친다면, 비문학과 문학은 같은 유형의 독해이므로, 문제의 비중이 비문학에서 문학으로 옮겨진 것일 뿐 유형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문학 독해>

출제된 7문제 중 현대 문학 5문제, 고전 문학 2문제이다. 시의 이해와 감상 문제가 2문제, 소설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가 3문제, 고전 문학에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문학 작품은 배경 지식이 없이도 풀 수 있는 독해 문제로 구성되었고, 지문이 익숙한 내용이어서 푸는데 힘이 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문학 독해는 평소에 많은 작품을 읽고, 이를 문제로 분석해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 [정답] ②

#### [해설]

이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② '환기-요구-조건-위협'이다.

- 환기: "龜何龜何(구하구하)"는 거북을 부른 것인데, 이는 '환기'에 해당한다. 주술적인 노래에서는 소원을 들어줄 대상을 먼저 부른 후 소원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대개 첫머리에 호명이 놓인다.
- 요구: "首其現也(수기현야)"는 소망을 말한 것으로 이 노래의 중심 구절이다. '首(수)'는 우두머리[君主]로 해석할 수 있다.
- 조건: "若不現也(약불현야)"는 '만약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다. 가정적인 표현으로 이는 조건에 해당한다.
- 위협: "燔灼而喫也(번작이끼야)"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위협으로,

이 구절은 주술가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난 부분이다.

#### <더 알아보기>

#### [해제]

'구지가'는 구간을 포함한 수백 명의 군중이 구지봉에 모여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흠을 파헤치며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이다. 고대 가요에 나타난 의식을 토대로 분석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군중의 노래에 주술성이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흠을 파면서 불렀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노동의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노동요의 성격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 [주제]

새로운 생명(신령스러운 임금)의 강림 기원

###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샨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 [정답] ④

#### [해설]

4행의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에서 '슬픔'이라는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나 있다. 슬픔을 퍼다 버린다는 것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삼에 묻은 일의 찌꺼기를 씻어내면서 그 강물에다 삼의 비애도 함께 씻어서 버린다는 의미이다. 또한 10행의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는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물어 가는 삶이 희망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연구]

- 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삼에 묻은 일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행위는 2행에 나타나 있다.
- ② 15행~16행의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 나타나 있다.
- ③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는 힘든 노동자로서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해제]

이 시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소외된 노동자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강물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지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감에 빠져 체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화자가 자연물인 '저문 강', '달'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암담한 현실에 체념하는 노동자를 통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

궁핍한 도시 노동자의 삶의 비애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해설]

밑줄 친 부분 앞에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를 통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囊中之錐(낭중지추)’를 유추할 수 있다.

• 囊中之錐(낭중지추: 囊, 주머니 낭/中, 가운데 중/之, 갈지/錐, 송곳 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오답 연구]

-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吳, 나라이름 오/越, 넘을 월/同, 한 가지 동/舟, 배 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馬, 말 마/耳, 귀 이/東, 동녘 동/風, 바람 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近, 가까울 근/墨, 먹 묵/者, 농 자/黑, 검은 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영달이 옥자를 떠올린 것은 옥자가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애처럼 가벼웠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앞에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답 연구]

- ①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에 나타나 있다.
- ②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에 나타나 있다.
- ④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와 그 이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황석영, 「삼포 가는 길」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하층 노동자, 술집 작부 등으로 산업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 유형들이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관계였던 인물들은 여정이 끝날 무렵에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한다.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애환과 연대 의식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는 의미이다. ③의 ‘고치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 연구]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는 의미로 쓰였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해설]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오답 연구]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는 의미의 말은 ‘활발하다’이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는 의미의 말은 ‘산만하다’이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는 의미의 말은 ‘잔망스럽다’이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염기
- ② 강타자
- ③ 강기침
- ④ 강행군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어휘의 접두사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은 '강기침'의 '강'이다. 여기서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것으로, 이는 고유어 접사이다. '강'과 '기침'이 결합한 '강기침'은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연구]

-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④ 강행군'의 '강'은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한자어 '強(강)'에서 온 것이다.
- ① 강염기(強鹽基):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강알칼리.
- ② 강타자(強打者):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 ④ 강행군(強行軍):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정답] ②

[해설]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에서 '불은'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기본형은 '불다'이다. '불다'와 같은 'ㄷ' 불규칙 용언은 '불다, 붓고, 불으니, 불은' 등으로 활용한다.

[오답 연구]

- ① '갈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갖는 말은 '갈다'로 용언의 어간 'ㄹ'이 어휘들은 그 뒤에 '-ㄴ, -ㄹ, -ㅂ, -ㅅ, -오'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가니, 갈 거야, 갑니다, 가십니다, 가오' 등으로 활용한다.
- ③ '갈 깨달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타이르다)'의 의미를 갖는 말인 '이르다' [講]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모음 어미와 결합하면 'ㄹ'이 탈락하면서 'ㄹ'이 덧생기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일러, 일러서, 일렀다'와 같이 활용한다.
- ④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의 의미를 갖는 말은 '들르다'로, '들러, 들르니, 들러서' 등으로 활용한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째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돌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툰만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꼬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뿜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해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직후이고, 공간적 배경은 항구 도시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인데, 제시문에는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연구]

- ① '어머니'는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라고 했고, '나'는 "애라고 조금 주세요?", "고기로 달래요."라고 하여 어머니의 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는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에 나타나 있다.
- ④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에서 '중국인'의 정서를 찾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오정희, 「중국인 거리」

[해제]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하여 한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인 거리는 하층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일종의 빈민가이다. '나'라는 등장인물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주제]

유년 시절의 체험과 정신적·육체적 성장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은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4문단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말을 통하지 않고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연구]

- ① 4문단의 "생각이라는 것은 큰 것이며, 말이란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말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의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를 통해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해설]

화자가 나비의 연약한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비’를 ‘공주’에 빗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화자가 이를 비판한 것도 아니다. 나비는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다가 지쳐 돌아오는 존재로, 현실의 냉혹함을 모르고 좌절하는 당대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연구]

- ① 2연에서 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날개가 바닷물에 절어서 지쳐서 돌아온다. ‘청무우밭’은 나비가 지향하는 공간이고, ‘바다’는 나비를 지치게 하는 좌절의 공간이므로, 이는 대립되는 이미지에 해당한다.
- ② 1연에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다고 했으므로,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를 모르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나비의 허리를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다.

<더 알아두기>

김기림, 「바다와 나비」

[해제]

이 작품은 거대한 문명의 세계인 ‘바다’와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순진한 존재인 ‘나비’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상향의 좌절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더니즘 시이다.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금광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축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

[해설]

‘금광브로커’의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인물들”을 바라보는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라는 진술로 보아 ㉡의 ‘금광브로커’는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 아니라, 서술자에게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연구]

- ㉠ ㉠: ‘개찰구’는 금을 찾아 떠나는 당대 세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이다.
- ㉢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와 ‘금광브로커’들은 모두 구보에게 ‘무거운 한숨’을 쉬게 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 ㉣ ㉣: ‘총독부 청사, 동축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의 앞부분에, 이 공간에서 ‘고도의 금광 열’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더 알아두기>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해제]

이 소설은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이다. 소설가 구보는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도시를 배회한다. 그의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는데, 그에게는 자기가 겪은 우연한 일상들을 노트에 적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다. 자신의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의 일상적 풍경과 군중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한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야 했던 지식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

소설가의 눈에 비친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

문 13.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응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흥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소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는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직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택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휫(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말,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뽀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직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쳐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삼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 ㉡: ‘부인’이 꾸는 꿈의 상황이다.
-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해설]

부인이 꿈 속에서 '남약산 신령'은 '선관'을 부인댁으로 가라고 지시한 존재이고, '선관'은 청룡을 타고 온 존재이다. "풍진(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중에 너를 찾"겠다는 것은 '선관'이 한 말로, '남약산 신령'이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남약산 신령'이 후일에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한다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을 근거는 없다.

[오답 연구]

- ① ㉠: 신령들이 내려와서 제물을 모두 흥향(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하였고, 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길조(吉兆)'와 연관되므로, ㉠은 적절한 해석이다.
- ② ㉡: 바로 앞부분에서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인이 꿈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③ ㉢: '선관'은 백옥루 잔치에서 '익성'과 싸운 죄로 인간 세상에 유배된다. 이어지는 부분에 나오는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를 통해 ㉢을 파악할 수 있다.

<더 알아두기>

「유충렬전」

[해제]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로,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에 비교적 충실한 작품이다.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귀양 온다는 설정에서 적강 소설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작품의 두 인물인 '유충렬'과 '정한담'은 각기 충신과 간신의 전형을 보여 주는데, 이들의 대립을 통해 조선 후기 혼란한 사회 질서 속에서 '충(忠)'의 가치를 보여 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주제]

유충렬의 영웅적 행위

[줄거리]

명나라의 정언주부 유심은 늙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약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꾸 뒤 아들을 얻어 충렬이라 이름을 짓는다. 이때 반역의 마음을 품은 정한담과 최일귀 등이 옥관도사의 도움을 받아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유심의 집에 불을 놓아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려 한다. 충렬은 천우신조로 살아나 강희주를 만나 사위가 된다. 유심을 구하려고 상소를 올렸던 강희주는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고, 그의 가족도 난을 피하여 모두 흩어진다.

유충렬은 강 남자와 이별하고 백용사의 노승에게 무예를 배운다. 이때 남적과 복적이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스스로 출전하길 원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는 남적에게 항복하고 그 선봉장이 되어 도리어 천자를 공격한다. 정한담에게 계속해서 패한 천자가 항복할 즈음에 유충렬이 남적의 선봉 정문걸을 죽이고 천자를 구출한다. 이어 유충렬은 홀로 반란군을 치고 정한담을 사로잡고, 호왕에게 잡혀간 황가 일족과 유배지에 있던 아버지와 장인을 구하고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내를 만난다. 그 후 높은 벼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낮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해설]

'잠갔다'의 어간 '잠그-'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하면 '잠갔다'가 된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책상 서랍을 잠가라/책상 서랍을 잠갔다'와 같이 적는다. '잠갔다'는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연구]

- ① 낮았다 ⇨ 나았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는 의미의 말은 '나았다'이다. '나았다'의 어간 '나-'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하면 '사'이 탈락하여 '나았다'가 된다. '사' 불규칙 활용을 하는 '나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은, -으니'가 붙을 때에 '나아, 나온, 나오니'로 활용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 -고, -지'가 붙을 때에 '났는, 낫고, 낫지'로 활용한다(한글 맞춤법 제18항). 한편,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이다. '낳아, 낳으니, 낳는'과 같이 활용한다.
- ② 넉넉치 ⇨ 넉넉지: '넉넉하지'는 '하'가 아주 줄어 '넉넉지'로 표기된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40항). '-하' 앞이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하' 전체가 떨어지고,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ㅏ'만 떨어진다.
- ④ 이어서 ⇨ 이어서: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는 의미의 말은 '잇다'이다. '사' 불규칙 활용을 하는 '잇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은, -으니'가 붙을 때에 '이어, 이은, 이으니'로 활용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 -고, -지'가 붙을 때에 '잇는, 잇고, 잇지'로 활용한다(한글 맞춤법 제18항). '잇다'의 어간 '잇-'에 어미 '-어서'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어서'가 적절한 표현이다. 한편, '-어서'는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이다.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ㅇ
- ② ㅏ
- ③ ㅑ
- ④ ㅓ

[정답] ④

[해설]

'ㅓ'(순경음 비읍)는 실질적 음가를 지니지만,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는 빠져 있다. 'ㅓ'(순경음 비읍)는 순음(ㅁ, ㅂ, ㅍ, ㅃ) 아래에 'ㅇ'을 이어서 쓴다는 연서법(이어쓰기)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따라서 ④의 'ㅓ'는 훈민정음의 28 자모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연구]

훈민정음의 28자모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아울러 이르는 것이다. 자음의 기본 글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는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모음의 기본 글자(ㅏ, ㅑ, ㅓ, ㅕ)는 天[하늘]·地[땅]·人[사람] 삼재의 원리를 본떠서 만들었다. 자음은 이 기본자를 바탕으로 가획자를 만들었는데, 이처럼 한두 개의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를 가획자(ㅋ, ㆁ, ㆆ, ㅌ, ㅍ, ㅊ, ㅍ, ㅆ, ㅈ, ㅉ, ㅊ, ㅌ)라고 한다. 또한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를 이체자(ㅇ, ㄹ, ㅏ)라고 한다. 모음은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ㅗ, ㅛ, ㅜ, ㅠ)와 재출자(ㅛ, ㅜ, ㅠ, ㅡ)를 만들었다.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①

[해설]

'중(中)'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을 나타내거나 '여럿의 가운데'의 의미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한밤중, 은연중, 무의식중, 부재중' 등은 한 단어로 굳어진 말로 붙여 쓴다.

[오답 연구]

문 14. ㉠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 ㉡  | ㉢  | ㉣  |
|---|----|----|----|----|
| ① | 説明 | 描寫 | 敘事 | 論證 |
| ② | 設明 | 描寫 | 敘事 | 論症 |
| ③ | 說明 | 猫鯨 | 徐事 | 論症 |
| ④ | 說明 | 猫鯨 | 徐事 | 論證 |

[정답] ①

[해설]

㉠~㉤에 알맞은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 ㉠ 説明(설명: 說, 말씀 설/明,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 描寫(묘사: 描, 그릴 묘/寫, 베낄 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 ㉢ 敘事(서사: 敘, 차례 서/事,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 論證(논증: 論, 말할 논/證, 증거 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오답 연구]

- ② • 設明(설명: 設, 베풀 설/明, 밝을 명): '設(x)이 아니라 '說(○)로 고쳐야 한다.
- 論症(논증: 論, 말할 논/症, 증세 증): 병의 증세를 논술함.
- ③ • 猫鯨(묘사: 猫, 고양이 묘/鯨, 상어 사): =괘이상어.
- 徐事(서사: 徐, 천천히 사/事, 일 사): 태봉에서, 광평성의 둘째 벼슬. 고려의 시랑(侍郎)과 같다.
- ④ • 猫鯨(묘사: 猫, 고양이 묘/鯨, 상어 사): =괘이상어.
- 徐事(서사: 徐, 천천히 사/事, 일 사): 태봉에서, 광평성의 둘째 벼슬. 고려의 시랑(侍郎)과 같다.
- 論症(논증: 論, 말할 논/症, 증세 증): 병의 증세를 논술함.

- ② 잘할 뿐더러 ⇨ 잘할뿐더러: ‘ㄹ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잘할뿐더러’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③ 시간만에 ⇨ 시간 만에: ‘만’이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쓰고, ‘동안이 얼마나 계속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 문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시간 만에’처럼 띄어 써야 한다.
- ④ 안 된다 ⇨ 안된다: ‘안’이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기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에 띄어 쓰지만, ‘안’이 ‘되다’와 결합하여 별도의 의미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붙여 쓴다. 여기서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별도의 의미를 가지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해설]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의 ‘探險(탐험), 矛盾(모순), 貨幣(화폐)’이다.  
 • 探險(탐험: 探, 찾을 탐/險, 험할 함):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 矛盾(모순: 矛, 창 모/盾, 방패 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貨幣(화폐: 貨, 재화 화/幣, 비단 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가 있다.

[오답 연구]

- ② • 詐欺(사기: 詐, 속일 사/欺, 속일 기): 나쁜 꾀로 남을 속임.  
 • 惹起(야기: 惹, 이끌 야/起, 일어날 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灼熱(치열 ⇨ 작열: 灼, 사를 작/熱, 더울 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 荊棘(형자 ⇨ 형극: 荊, 모형나무 형, 棘, 멧대추나무 극): 나무의 온갖 가지./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破綻(파탄: 破, 깨트릴 파/綻, 옷 터질 탄): 찢어져 터짐./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잘못됨.  
 • 洞察(통찰: 洞, 꿰뚫을 통/察, 살필 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④ • 箴言(잠언: 箴, 바늘 잠/言, 말씀 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따위이다.  
 • 惡寒(악한 ⇨ 오한: 惡, 미워할 오/寒, 찬 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 惡: 악할 악, 미워할 오  
 • 奢侈(사치: 奢, 사치할 사/侈, 사치할 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ㄷ, ㅌ, ㅍ’은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은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해설]

‘ㄴ, ㅁ,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비음은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편,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연구]

- ② 마찰음은 입 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로, ‘ㅅ, ㅆ, ㅎ’ 따위가 있다
- ③ 후설 모음은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으로, ‘ㅗ, ㅜ, ㅡ, ㅝ, ㅞ’ 따위가 있다.
- ④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으로, ‘ㄱ, ㅋ, ㆁ, ㆑’ 따위가 있다.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라) - (나) - (다)

[정답] ②

[해설]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② ‘(가) - (나) - (라) - (다)’이다.  
 (가)는 도입부로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 되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 된다고 하여, ‘이것’과 ‘저것’은 상대적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가)에서 제시한 ‘저것’과 ‘이것’이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것임을 인과로 이어주며, 이것이 ‘혜시(惠施)의 설’임을 언급한다.  
 (라)는 (나)에서 언급한 ‘혜시(惠施)의 설’을 토대로, 만물이 의미 차원에서 보면 모두 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는 세상일은 모두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성인(聖人)은 그러한 방법에 의거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는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논지에 이르고 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②	③	③	①	③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①	③	④	①	①	①	②